

# 강경애 장편소설 재론

## - 페미니스트적 독해에 대한 하나의 문제제기

김경수\*

### 차 례

1. 문제제기
2. 강경애 장편소설의 재독해
3. 결론과 몇 가지 가설

이 글은 강경애의 장편소설에 대한 기존의 해석의 빈틈을 문제삼는다. 강경애의 장편소설의 경우 그것이 과연 작가의 젠더의식을 고스란히 구현하고 있는가? 기존의 지배적인 논의가 페미니스트적 텍스트에 대한 페미니스트적 전망에서 도출된 독해라면, 동일한 작품을 다른 각도, 이를테면 남성비평 phallic criticism의 전망에서 볼 경우 작품의 의미가 어떻게 달리 읽혀질 수 있는가 하는 점 등이 문제의식인 셈이다.

강경애의 『인간문제』는 이야기-선의 전개상 중심인물을 남성 주인공인 첫째로 상정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으며, 또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여성인물 중심으로 해석했을 때보다 훨씬 자연스럽다. 그리고 『어머니와 딸』의 이야기 또한 개연성의 측면에서나 소설의 궤진성의 측면에서 남성 인물인 봉준의 인물화가 훨씬 안정적이다. 비록 이 두 편에서 여성문제가 중요한 주제적 국면을

---

\* 서강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이루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여러 의미망 가운데 하나일 뿐, 여러 주제들을 통합하고 주도하는 상위수준의 주제는 되지 못한다.

위와 같은 해석은 문학연구에 있어서 작가의 젠더와 젠더의식의 일치를 자명한 것으로 간주하는 해석이 놓칠 수 있는 작품의 의미영역을 드러내주는 예로서 충분한 근거를 제공한다. 이런 결과는 이 두 편의 소설이 작가의 현실 경험을 토대로 쓰인 것이라기보다는 개인적인 독서체험으로부터 씌어졌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때 강경애의 독서체험의 원천이 되어주었던 작품들은 시기적으로 볼 때 거의 대부분 춘원과 김동인, 그리고 염상섭과 장혁주 등과 같은 남성작가의 작품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인물화 및 장면화의 유사성이 그에 대한 한 증거다. 이런 정황을 감안해볼 때 강경애 소설이 남성중심적인 전망을 강하게 내보이고 있는 것은 어쩌면 매우 자연스러워 보인다.

강경애가 놓였던 이런 문제적인 독서체험의 상황은 아마도 1930년대에 활동했던 상당수 여성작가들의 문학적 환경이기도 했을 것이다. 식민지 시대 여성작가들의 문학적 수련의 성격과 본질에 관한 연구가 향후 여성문학 연구의 긴요한 과제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핵심어 : 젠더의식, 남성비평, 여성문학, 페미니스트적 전망, 독서체험, 가부장제

## 1. 문제제기

강경애는 식민지 시대에 활동한 여성작가 가운데 가장 많이 연구된, 그리고 현재도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는 작가 가운데 한 명이다. 물론 짧은 문학적 생애와 그로 인한 제한된 작품 분량도 폭넓은 연구를 가능케 한 조건이었겠지만,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그녀가 일제의 식민지배로 인한 한국 근대사의 파행적 전개를 몸소 겪었던 예외적인 여성작가였다는 점과, 얼마 되지 않는 그녀의 문학이 일제의 식민지배에 대해 우리

문학이 보여주고 거두어낸 문학(혹은 문학사상)적 응전력을 살펴보는 데 적절한 재료가 되어주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하여 현재 강경애 문학에 대한 연구는 개인사적 삶의 재구는 물론이거니와 간도체험과 문학의 상관성의 문제, 그리고 사회주의적 리얼리즘의 문학적 수용 및 여성비평적 견지에서서의 심층적인 해석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최근의 가장 두드러진 연구 경향이 이른바 여성주의적 연구 혹은 여성비평적 연구라는 것에 이견을 제기할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을 것이다. 작가 자신이 식민지 시대 예외적으로 작가로 활동했던 여성이라는 사실과 그녀의 주요한 작품들이 식민지 치하에서 여성인물들이 겪는 고난과 그로부터의 각성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이런 접근법은 매우 적절하고 또 필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여성주의적인 시각은 점차 강경애 소설에서 반복적으로 전경화되고 있는 사회주의 이데올로기 및 계급의식의 문제로 까지 심화되고 있는데, 이런 방향으로 연구가 확산되고 심화되는 것 또한 긍정적인 현상으로 보인다.

그런데 강경애 소설에 대해 기왕에 이루어진 많은 논의들은 미세한 대목에서는 의견차이가 확연히 나기도 하지만, 당대의 사회적 문제를 여성의 문제와 연관시켜 파악하고 있다는 작가의 사상적 지향이라든가 작품의 문학사적 위상에 대해서는 대체로 의견의 일치를 보이고 있다. 장편소설 『인간문제』에 대해 제출된 최근의 해석들 가운데, 여성비평적 시각에서 비교적 이견 없이 받아들여지고 있는 대표적인 논의들을 인용하면 아래와 같다.

강경애의 대표작은 장편소설 『인간문제』인데, 이 소설은 황해도 장연과 인천 부두를 공간적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작가는 간도라는 특수한 공간

에서 국내를 바라보면서 당대의 어느 작가보다도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역사와 현실 변혁에 대한 튼튼한 낙관적 전망을 가지고 현실을 반영함으로써 뛰어난 성과를 낳았다.……또한 선비가 일하는 인천 방적공장에서의 노동과정, 기숙사생활, 상금·벌금 제도를 교묘히 활용하여 노동을 착취하는 자본가의 술책, 공장 감독의 여공에 대한 성적 착취, 공장 내의 조직 선전 작업과 그에 대한 노동자들의 반응, 공장 감독의 노동자 이간책, 노동 현장에서 느끼는 동지애에 대한 폭넓은 묘사는 우리 문학사에서 최초의 것이며, 이 시기 다른 소설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구체성과 현실성을 지닌 것이다.”<sup>1)</sup>

이 작품의 성과 중 하나는 지배계급에 대한 생생한 묘사, ‘신철’로 대표되는 동요하는 지식인의 계급적 한계, 피지배 계급 여성과 남성 간의 연대와 같은 다각적인 부면을 통해 역사발전의 전망을 보여주고 있는 점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인간문제’는 어디까지나 ‘여성문제’를 통해 구체성을 얻게 된다. 작가는 여성의 개인적 경험을 뛰어넘어 선비, 간난 등 노동하는 여성들의 집단적인 경험에 주목한다.……사회적, 계급적, 성적으로 변화해가는 ‘과정중인 여성정체성’은 인간문제가 여성문제와 맞닿아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sup>2)</sup>

『인간문제』에서 선비의 삶이 잘 보여주고 있듯이, 한때 현실에 안주했던 구여성은 공·사영역의 편협한 구분을 초월하는 생산적인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해 나간다. 그들은 가부장적 순결 개념에 더 이상 연연하지 않고 노동과 (재)생산의 주체임을 인식한 행위자로 변모한 것이다. 그 결과, 자본의 논리에 희생당하고 착취당하면서도 자본의 논리를 거슬러 갈 수 있을 정도로, 그리고 성적 폭력에 노출될수록 더욱 더 자신의 여성적 정체성을 자각해 나갈 수 있을 정도로, 구여성의 의식은 역동적으로 재현될

1) 이상경, 『강경애의 <인간문제>』, 이상경 편, 『인간문제』(창작과비평사, 1992), pp.369~372.

2) 김양선, 『1930년대 소설과 근대성의 지형학』(소명, 2003), pp.260~261.

수 있었다.<sup>3)</sup>

위에 인용한 세 편의 논의는 강경애의 『인간문제』가 식민지 시대의 억압의 대상이었던 여성들의 자기정체성 정립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룬 작품으로서, 집단적인 여성의 문제가 인간문제와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동시에 여성들을 억압했던 근대라는 시대적 조건에 대한 인식도 게을리하지 않음으로써 당시의 노동현실의 구체적 실상을 소설화해낸 문학사적 문제작이라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의견상 이러한 논의는 이론의 여지없이 타당해보인다. 작가가 식민지 시대를 나름대로 혹독하게 경험했으며, 그 위에서 여성으로서의 분명한 자의식을 가지고 자신을 포함한 여성 일반의 시대적 굴레를 <공장>이라고 하는 식민지 시대의 대표적인 사회적 공간을 배경으로 그려냈다는 것은 누구라도 수긍할 만한 논의이다.

그런데 이런 논의들은 미세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공통된 인식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작가의 젠더 정체성이 그의 문학활동을 규정짓는 근본적인 요소로서, 특정 작가의 작품에 구현된 젠더정체성은 필연적으로 작가의 젠더 정체성의 연장일 수밖에 없다는 확신 같은 것이다. 문학작품의 해석에 있어서 작가의 젠더는 물론 독자의 젠더가 또한 중요한 요인이라고 하는 페미니스트적 전망이 보편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현실<sup>4)</sup>을 감안하면 이런 해석이 중첩적으로 제기되는

3) 김민정, 『일제시대 여성문학에 나타난 구여성의 정체성에 관한 연구』, 『여성문학연구』 제14호, p.216.

4) 남자와 여자가 동일한 텍스트를 다르게 읽는다는 인지론적 견해는 이론의 여지없이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 경우 어떤 텍스트의 해석에 독자가 작동시키는 스키마-선택적 도해-가 젠더-특유(gender-specific)적이라는 점은 페미니스트적 독해의 변별성을 정당화하는 기본적인 전제다. 이 점에 대해서는 Mary Crawford/Roger Chaffin의 "The Reader's Construction of Meaning"(Elizabeth A. Flynn & Patrocínio Schweickat ed, Gender and Reading, Johns Hopkins U. p., 1986), pp.3~30이 중

것은 어쩌면 당연해보이기도 하는데, 공교롭게도 위에 인용한 필자들을 포함하여 강경애를 위와 같은 입장에서 해석하고 있는 상당수의 논자들이 여성학자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전제가 한번쯤 의심되어도 괜찮을 성질의 것이라는 것을 알려준다.

이 글은 이런 문제의식에서 출발해 강경애의 장편소설에 대한 기존의 해석의 빈틈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자 한다. 문제의식은 다음과 같다. 즉, 강경애의 장편소설의 경우 그것이 과연 작가의 젠더의식을 고스란히 구현하고 있는가? 만일 그렇지 않고 작가적 전망과 소설의 서술적 전망 사이의 괴리가 존재한다면 그 빈틈에 대한 독해를 통해서 어떤 의미가 해석될 수 있는가? 그리고 또 하나. 기존의 지배적인 논의가 페미니스트적 텍스트에 대한 페미니스트적 전망에서 도출된 독해라면, 동일한 작품을 다른 각도, 이를테면 남성비평 phallic criticism의 전망에서 볼 경우 작품의 의미가 어떻게 달리 읽혀질 수 있는가 하는 점 등이다.<sup>5)</sup> 이 글은 이런 시각에서 강경애의 장편소설 『어머니와 딸』과 『인간문제』<sup>6)</sup>를 다시 고찰하고자 하는 글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 글이 의식적으로 남성비평적 독법을 견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일차적으로 이 글은 해석자의 젠더를 문제삼자는 것이 아니라 기왕의 많은 논자들이 암묵적으로 동의하고 있는 그 전제가 정말 확고부동한 것인가를 논의해볼 수 있지 않느냐는 문제제기임을 밝혀둔다.

---

요한 참조점이 된다.

5) ‘남성비평’이란 초기 페미니스트 비평의 관내에서 제기된, 섹슈얼리티와 문학적 스타일의 교점에 대한 관심의 연장선상에서 이른바 문학적 양식상의 ‘남성성’을 규명하는 것을 표방한 비평적 접근법이다. 그러나 이 글에서 명시적으로 이 방법론을 채택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남성비평에 대해서는 Peter Schwenger, *Phallic Critiques*(RKP, 1984), pp.1~15를 참조하라.

6) 이상경 편, 『강경애 전집』(소명, 1999)을 텍스트로 하며, 인용시는 면수만 밝힌다.

## 2. 강경애 장편소설의 재독해

『어머니와 딸』(『해성』, 1931-1932)는 강경애의 첫 작품으로 옥이라고 하는 한 구여성의 자기각성과정을 그리고 있는 소설이다. 조실부모한 후 산호주에게 거두어진 옥이는 산호주의 유언대로 산호주의 아들 봉준과 결혼한다. 그러나 봉준은 동경에 유학을 다녀온 봉준은 친구인 재일의 여동생인 숙희를 사랑하게 되어 번뇌하던 끝에 옥이에게 이혼을 요구하게 되는데, 와중에 영철 선생의 지도로 서울에 유학하여 여학교에 입학하는 등 나름대로 새로운 의식을 갖게 된 옥은 급기야 남편의 이혼요청을 받아들이고, 이런 사정을 무마하기 위해 고향에서 올라온 영철선생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길을 가겠다는 의지를 확고하게 내비친다.

그런데 작품에서 옥의 의식의 각성이 이루어지는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면 영성하기 짝이 없다. 어린시절부터 자신을 거두어준 의어머니 산호주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의리로 봉준을 보살펴왔던 옥은, 봉준의 숙희에 대한 상사병이 깊어지자 그것을 보다 못해 숙희를 데리러 간다. 그러나 숙희가 응하지 않는 바람에 허탈하게 영실과 함께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호송되어가는 영실의 오빠를 보게 되는데, 바로 그 순간 옥은 영실의 오빠가 “몇백 명의 노동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희생해 바친”(121) 사람임을 상기하고 그가 밟고 간 길로 자신도 가야 한다고 영실에게 말한다.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집으로 돌아와서 봉준을 보며 속으로 “불쌍한 인간! 차라리 울 바에는 너를 위하여 울어라. 좀더 나아가 여러 사람을 위하여 울어! 한낱 계집애를 생각하여 운다는 것은 너무나 값없는 울음이 아니냐!”(p.123)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뒤이은 봉준의 이혼요구에 선뜻 응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자신이 어리석었다는 말을 내비친다.

옥이가 유학에서 돌아와 숙희에게 미쳐 날뛰는 봉준에게 지속적으로 실망했다는 점과 자신에게 연서를 보낸 재인의 행동을 봉준이 숙희와 결혼하기 위해 꾸민 짓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가졌었다는 점을 감안한다고 해도, 길거리에서 우발적으로 만난 영실의 오빠로 인해 자신의 과거를 비판적으로 반추해보고, 선뜻 봉준의 이혼요구를 받아주는 것은 비약이 심하다. 하지만 이보다 더 심한 비약은 봉준이 옥이와의 관계를 다시 정립하기 위해 영철선생을 불러올렸을 때 그와 나누는 대화 부분이다. 고향 사람들의 근황을 묻는 자리에서 십여 가구나 되는 사람들이 만주로 떠났다는 말을 들은 직후 옥과 영철선생이 나누는 대화는 아래와 같다.

“그들이 만주로는 무엇하러 갔나요?”

눈물이 핑 돌았다.

신문을 통하여 농촌 형편을 대강 짐작은 했지만 막상 낮익은 자기 고향 사람들이 못 살고 떠났다는 소리를 들으며 마치 나기 일이나 당한 듯하였다.

“만주에서는 누가 이마에 손 없고 기다린답더이까?”

봉준, 재일까지도 멍하니 그들의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그곳에는 땅이 흔하다네. 그래서 농사 지으러들 가지. 우리 근처서 몇 몇 들어간 사람들은 아조 넉넉히 지낸다는데.”

옥의 흘리는 눈물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당연할 것이다 하였다.

“땅이 흔하면 거저 준다나요! 내 땅을 떠나서 가면 무얼해요. 이제도 떠나겠다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거들랑 선생님께서 제발 말려주세요. 앞길을 막고 사정없이 때려 주세요. 아니 반쯤 죽여 주세요! 굶어 죽어도 내 땅에서 죽고 빌어먹어도 내 고향에서 먹어야지요.”

선생은 어리둥절하여 옥이를 보았다(p.131).

위 인용문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작품 속의 인물들이 어리둥절하게 느낄 만큼 옥이의 변화는 낯설고 돌연하다. 그리고 오늘날의 독자가 읽



어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옥이의 위와 같은 변화는 작품 내적으로 이렇다 할 필연성 위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작가의 간도체험과 계급의식이 과도하게 투영되어 일어난 것이기 때문이다. 어린 시절 어머니 예쁜이의 난봉으로 인해 옥이가 겪었던 고통의 기억과 의어머니 산호주의 유언으로부터 비롯된 일정한 사고의 심화가 이루어졌고, 또 영실의 오빠를 본 뒤 자신이 살아온 삶에 대한 자성의 계기가 있었다는 것을 감안한다고 해도 작품 말미로 가면서 점차 요지부동의 것으로 화하는 옥의 변화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런 옥의 변화가 작위적이라고 한다면, 봉준의 경우는 그 인물화가 훨씬 자연스럽다. 구여성과 결혼한 유학생으로서 새롭게 사랑하게 된 신여성으로 인해 겪는 봉준의 심리적 갈등은 당시 우리 소설에 넘쳐나던 주제로서 강력한 시대적 개연성을 확보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숙희와의 담판이 여의치 않게 된 뒤에 상사병을 앓는 대목이라든지, 숙희와의 결합을 위해서는 먼저 이혼을 해야 한다고 하는 재일의 말을 그대로 따라 옥에게 이혼을 요구하는 철부지 같은 행동, 그리고 옥이 자신의 이혼요구를 받아들인 뒤에 다시금 남편으로서의 권리를 요구하는 관성적인 가부장적인 행동 등은, 『무정』의 이형식을 연상시킬 만큼 그를 일종의 피카르로 부각시키기에 족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작품의 말미에서 자신의 후원자로 영철선생을 불러올리고, 또 위 인용문에서 보는 것처럼 옥의 기상천외한 발언에 넋을 잃고 마는 것을 보면, 이 작품은 오히려 15세 때에 연상의 구여성과 결혼한 후 뒤늦게 자유연애에 눈뜨 봉준이라는 사춘기적 인물의 방향의 이야기로 해석하는 편이 훨씬 자연스럽다. 이렇게 읽는다면 「어머니와 딸」은 그 제목에서와 내용면에서 작가가 어떤 새로운 여성상을 탐구하려고 했던 간에, 그 의도가 온전히 반영되지 못한 습작 정도로 평가하는 것이 온당해보인다.

다음은 「인간문제」를 살펴보자. 위에 인용한 세 편의 논의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작품 또한 선비라고 하는 여주인공의 정체성을 중심으로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던 작품으로서, 작가 강경애의 여성문제에 대한 인식이 전경화되어 있는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황해도 용연의 가난한 농부의 딸로 태어난 선비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죽자 지주인 덕호의 집으로 옮겨 부엌일이며 집안일을 도와주며 호구를 해결한다. 그러던 어느날 선비는 덕호에게 겁탈을 당하게 된다. 덕호의 시달림에서 벗어나기 위해 선비는 자신처럼 덕호의 첩노릇을 하다가 내쳐져 서울로 간 간난이의 주소를 손에 넣게 되는데, 바로 그 즈음 신철과의 혼약을 이루지 못한 덕호의 딸 옥점이기 탓에 덕호에게 선비가 신철과 관계가 있다고 무고하는 바람에 덕호로부터도 내쳐지게 된다. 여기까지가 작품의 전반부라 할 수 있다.

작품의 후반부는 서울로 간 선비와, 선비를 사랑했으나 덕호에게 대드는 바람에 농지를 떼이고 인천의 노동자로 전락한 첫째, 그리고 법관 시험을 준비하다가 혼인 문제로 아버지와 다툰 후 인천으로 와 노동운동을 하는 신철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간난이와 함께 인천의 대동방적 공장에 들어간 선비는 간난이의 도움으로 자신이 있는 공장이며 그 밖의 현실이 어떤 현실인가를 점차 인식하기에 이른다. 그러나 폐병을 앓고 있던 선비는 어느 날 야간작업 도중 쓰러져 죽게 되는데, 작품은 첫째가 병원에서 죽은 여공이 바로 선비라는 것을 확인하고, 결론적으로 선비와 자신의 운명을 규정하고 있는 ‘인간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인식하고 장차 나아갈 길을 자문하는 것으로 끝을 맺는다.

『어머니와 딸』과 비교할 때, 『인간문제』는 기법적 측면에서나 주제적 측면에서 한층 안정된 작품이다. 많은 논자들이 지적했던 것처럼, 용소의 전설이 깃들여 있는 용연 마을의 지주와 소작인의 현실이라든가 선비와 간난이가 일하는 인천의 방적공장의 체계와 인력통제의 현실, 그리고 거기에 맞서는 비밀스런 노동운동 및 신철과 같은 부르주아 출신

노동자의 변절 등이 사실적으로 그리고 뾰족하게 그려져 있기 때문이다. 인물들의 자기각성의 과정도 『어머니와 딸』에 비하면 자연스러운 경로를 밟고 있어 주목된다. 농민의 아들에서 노동자로 탈바꿈한 첫째는 물론 덕호에게 상처를 받고 고향을 떠나 공장의 노동자가 된 간난이와 선비가 자신들을 둘러싸고 있는 현실에 눈뜨는 과정도 한결 자연스럽다.

작품이 선비의 등장으로부터 시작해 그녀의 죽음으로 마감되고, 또 작품에 할애된 지면의 측면에서도 선비의 비중이 압도적이라는 측면에서, 이 작품이 여성문제와 인간문제의 상관성을 고찰했다거나 식민지 여성의 곤란과 운명이라는 것을 통해 식민지의 삶의 문제, 더 나아가 자본주의 체제 하의 보편적인 인간문제를 파악했다는 해석은 일정 부분 타당하다. 그러나 위의 개요에서도 드러났듯이 첫째 또한 선비와 간난이 못잖은 이 작품의 중심인물이며, 또 그런 입장에서 이 작품이 “남성 주인공을 중심으로 한 계급적 각성의 서사 외에도 여성 인물을 대상으로 하는 애정의 서사를 공통적으로 내포하고 있다”<sup>7)</sup>는 해석이 제기된 만큼, 일반적으로 ‘여성문제’에 초점을 맞춘 작품으로 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앞서 첫째와 선비 및 간난이의 자기각성의 과정이 자연스러움을 말한 바 있지만, 만일 그 자연스러움과 뾰족성의 정도를 거론한다면 선비의 경우는 많은 부분 그 변화가 작위적이며 그 폭 또한 큰 반면에 첫째의 경우가 더 설득력이 있기 때문이다.

작품 초반에 애정의 이야기-선에 수렴되었던 선비와 첫째 가운데 현실 논리에 대한 고뇌를 먼저 체험하는 것은 첫째다. 첫째는 덕호네 타작마당에서 덕호에게 대들다가 주재소 신세를 지고 나온 뒤로부터 ‘뱀’의 존재에 대해 의문을 갖게 되는데, 이 대목은 향후 고향을 등지고 인천으

7) 이수현, 『1930년대 경향소설의 이중서사 연구-이기영의 『고향』과 강경애의 『인간문제』를 중심으로』(서강대 대학원, 2001), p.14.

로 가게되는 첫째의 변신에 가장 중요한 계기가 되고 있다. 그 대목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그 하늘을 묵묵히 바라볼 때, 어젯밤 순사부장이 자기들을 모아 놓고, “너희들에게 법이란 것을 가르쳐야겠다.”하던 말이 그의 머리에 확 떠오른다.

“법, 법……법, 법에 걸리면 죽이는 법까지 있다지?”

그가 법이란 막연하게나마 전통적으로 신성불가침의 것으로 알았지마는……아니 지금도 그렇게 알지마는 어제 일을 미루어 곰곰이 생각하니 웬일인지 그 법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형용할 수 없는 영킨 실마리가 그의 온 가슴을 짝 채우고 말았다.

“우리들이 어제 덕호와 싸운 것이 법에 걸리는 일이라지? 그 법…… 법……”(p.243)

이서방은 이 법이란 것이 어떤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사람이 나기 전부터 이 세상에는 벌써 이 법이란 있었던 것같이 생각되었다. 이 말을 들은 첫째는 한참 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비애를 느꼈다. 동시에 벗어나지 못할 철칙인 이 법? 어째서 자기만이, 아니 그의 앞에서 신음하고 있는 이서방, 그의 어머니만이 여기에 걸려들지 않고는 못 견딜까?……(p.258)

위와 같은 첫째의 고뇌가 그의 사상적 각성과 서울로의 도망 및 이후 노동자로서의 자의식을 갖추는 일련의 변화과정에 중요한 동기가 되어 주고 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인천에서 신철과 알게 된 후에도 첫째는 신철에게 법에 걸리지 않는 법을 물을 정도로 집요하게 관심을 표하는데, 이런 점을 보면 훗날 신철과 함께 선비가 일하고 있는 공장에 뼈라를 넣어주는 등의 활동을 하면서 첫째가 이르게 되는 계급적 각성은 선비의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게 설득력을 지닌다.

선비도 자기가 넣어주는 그 뼈라를 보고 똑똑한 선비가 되었으면…… 하였다. 과거와 같이 온순하고 예쁘기만 한 선비가 되지 말고 한 보 나가서 씩씩하고도 굳센 여자가 되었으면……하였다. 그때에야말로 자기가 믿을 수 있고 같이 걸어갈 수도 있는 선비일 것이라……하였다.

그는 이러한 생각을 하며 걸었다. 인간이란 그가 속하여 있는 계급을 명확히 알아야 하며 동시에 인간사회의 역사적 발전을 위하여 투쟁하는 인간이야말로 참다운 인간이라는 신철의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하였다.(p.373)

『인간문제』에서 첫째가 신철로 인해 계급적 자각을 하게 되는 삼화는 선비가 간난이의 도움으로 서서히 자기 각성에 이르게 되는 과정과 매우 유사하다. 그러나 작품의 진행과정에서 간난이와 선비의 연대가 꾸준히 지속되는 데 반해, 신철과 첫째의 연대는 금이 가고 만다. 첫째도 가담한 부두노동쟁의와 관련하여 잡혀간 신철이 아버지와 친구인 판사 병식의 회유에 전향하고 다른 길을 걷기 때문이다.

작가가 다른 인물의 입을 빌어 ‘소위 지식계급’ 출신인 신철의 전향과 첫째와 간난이를 위시한 노동자계급의 연대를 대비적으로 그리고 있는 것은 물론 작가 자신의 계급의식의 반영일 것이다. 이렇게 보면 이 작품의 의미를 반드시 여성문제를 중심으로만 해석하는 것은 작품의 의미를 축소하는 격이 된다. 그 근거는 바로 위에서 인용한 첫째의 법에 대한 자각 문제를 다시 살펴보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법에 대한 첫째의 위와 같은 의구심과 그 형평성에 대한 고뇌는 식민지 시대 소설을 통틀어 아주 예외적인 장면 가운데 하나로 우리 소설과 법의 상관성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는 예로서, 다른 각도에서의 조명이 필요한 주제다.

그러나 이 점과 별개로 이 작품에 그려진 사건과 법의 문제의 상관성은 비단 첫째만의 일로 그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작품

초반에 덕호의 딸 옥점과 애정의 하위 이야기-선을 형성했던 신철은 경성제대 대학생으로 역시 전향한 아버지의 권고대로 일체의 관리인 고등 문관시험을 준비중이었던 인물로 그려지고 있고, 작품 말미에서 그를 사상적으로 전향케 하는 판사 병식은 신철이 고문시험 준비를 하던 시절 육법전서를 가슴에 안고 소리 내어 법조문을 외우던 인물이었기 때문이다. 첫째와 신철 및 병식에 이르기까지 작품의 중심 이야기-선의 변화를 주도한 인물들과 사건들에 한결같이 범의 문제와 범과 연관된 인물들이 등장하고 있는 점은 예사롭게 볼 사항이 아니다. 이런 맥락을 염두에 두면 작품의 말미에서 인물인 신철과 서술자의 합치된 목소리로 전달되는 아래와 같은 진술 또한 새롭게 해석될 여지가 충분하다.

첫째는 불불 떨어졌다. 이렇게 무섭게 첫째 앞에 나타나 보이는 선비의 시체는 차츰 시커먼 멍치가 되어 그의 앞에 캄 가로질리는 것을 그는 눈이 뚫어져라 하고 바라보았다.

이 시커먼 멍치! 이 멍치는 점점 크게 확대되어 가지고 그의 앞을 캄캄하게 하였다. 아니, 인간이 걸어가는 앞길에 가로질리는 이 멍치……시커먼 이 멍치, 이 멍치야말로 인간의 근본문제가 아니고 무엇일까?

이 인간 문제! 무엇보다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인간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몇 천만 년을 두고 싸워왔다.

그러나 아직 이 문제는 해결되지 못하였다. 앞으로 이 문제는 첫째와 같이 험상궂은 길을 걸어왔고 또 견고 있는 그러한 수많은 인간들이 굳게 뭉침으로써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p.413)

이상 살펴본 것처럼, 강경애의 『인간문제』는 기왕의 여성비평적 독해와는 달리, 이야기-선의 전개상 중심인물을 남성 주인공인 첫째로 상정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으며, 또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여성인물 중심으로 해석했을 때보다 훨씬 자연스럽고 메시지의 해석의 영역 또한

확장된다. 그리고 비록 습작 수준의 작품이긴 하지만 『어머니와 딸』의 이야기 또한 개연성의 측면에서나 소설의 꺾진성의 측면에서 남성 인물인 봉준의 인물화가 훨씬 안정적이다. 비록 이 두 편에서 여성문제가 중요한 주제적 국면을 이루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여러 의미망 가운데 하나일 뿐, 여러 주제들을 통합하고 주도하는 상위 수준의 주제는 되지 못한다. 위와 같은 해석은 문학연구에 있어서 작가의 젠더와 젠더의식의 일치를 자명한 것으로 간주하는 해석이 놓칠 수 있는 작품의 의미영역을 드러내주는 예로서 충분한 근거를 제공한다. 그리고 이는 더 나아가 본고가 서론에서 제기한 것처럼, 여성 작가의 젠더의식을 자명한 것으로 전제하거나, 사회적 개인으로서 특정한 여성작가가 지니고 있는 젠더의식이 고스란히 소설의 주제로 구현되었을 것이라고 상정하고 행하는 기왕의 해석적 관점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암시해준다. 8)

이 점에 대해서 안숙원의 기존 논의가 또 하나의 중요한 방증이 되어 준다. 안숙원은 강경애가 “빈/부의 갈등에 강박된 나머지 남녀 관계도 노동자/자본가의 경제적 구조 속에서만 보려 한 까닭에 여성 인물들이 겪는 성적 정체성의 위기에 대한 섬세한 통찰력이 미흡하다”고 평가한다. 즉, 강경애가 『인간문제』에서 목화숨틀과 방적기계라고 하는 여성적 작업의 동기화를 마련하고 그것을 통해 여성의 젠더문제를 거론하고자 한 작의는 분명하지만, “배고픔의 인간문제를 남성적 감수성으로 드러내고자 했기 때문에 언술과 젠더의 착종이 있게” 되었다고 평가하고, 강경애 소설의 이런 특성을 “유사남성성(pseudo-masculinity)”이라고 해석하고 있는 것이다.

---

8) 안숙원이 이 논문에서 사용하고 있는 ‘젠더공간’이라는 용어와 언술과 젠더의 상관성은 다소 추상적이고 부족하게 설명되고 있으나, 이런 논의가 이른바 여성언어(WL)와 관련하여 여성소설을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각을 열어보이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안숙원, 『유사남성적 언술과 ‘젠더’의식의 착종』, 안숙원 외, 『한국여성문학비평론』(개문사, 1995), pp.147~163 참조.

결국 강경애는 두 편의 소설을 통해 전통사회의 가부장적 제도의 폭력성과 그것의 직접적 희생양으로서의 여성의 존재를 문제 삼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역설적이게도 남성인물 및 젠더의식을 넘어서는 주제에 초점을 맞추으로써 애써 포착한 문제의식을 무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작가 강경애가 자신의 젠더와는 무관하게 당대 식민지 현실을 가부장적 세계관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말하자면 작가 강경애에게 전통 사회의 가부장적 제도의 폭력에 노출된 구여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는 해도,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그러한 구여성의 존재의 위기와 문제성을 소설적으로 형상화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는 것이다. 강경애는 최소한 계급의식의 소설적 수용이라는 차원에서는 일정 부분 성공했는지 몰라도, 오늘날의 많은 여성비평가들이 읽어내는 것처럼 여성의 문제성을 통해 식민지 근대의 문제를 전달하는 데에 있어서는 실패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여성 인물을 소설적으로 형상화하는 방법론을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다양한 남성들의 현실적 모습을 파악하고 묘사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여성 인물을 형상화하는 데 있어서는 기계적인 패턴을 답습했다는 것 자체가 이런 판단을 가능케 한다.

### 3. 결론과 몇 가지 가설

어떤 작가가 개인적으로 견지하고 있는 세계관이 그의 소설로 그대로 연장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비록 오늘날 새롭게 제기된 문제는 아니지만 여전히 문제적이다. 이 점을 인식하는 데에는 개인적 신념에 있어서 왕당파였던 발작의 세계관과 그의 작품의 반(反)왕당파적 성격 사이의 괴리를 두고 벌여졌던 논란을 상기하는 것만



으로도 족할 것이다. 강경애의 장편소설을 두고 그것을 가부장적 세계관의 반영으로 읽을 것이냐 페미니스트적 전망의 반영으로 읽을 것이냐 하는 문제 또한 이런 각도에서 우리 소설의 해석에 중요한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이다. 이런 문제와 관련하여 강경애의 『어머니와 딸』과 『인간문제』가 소설의 발상법 내지는 이야기를 축조하는 서사적 문법의 차원에서도 제기하고 있는 일정한 문제점 또한 매우 중요한데, 이 점을 가설적으로 언급하는 것으로 논의를 끝맺고자 한다.

『어머니와 딸』과 『인간문제』는 인물화의 과정에서 인물들의 각성의 당위와 꺾진성을 위해 동일한 방법론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은 인물들의 현재를 역사적 맥락에서 파악하는 것이다. 『어머니와 딸』의 경우, 작가는 주인공 옥의 현재를 이야기하기 위해 그의 모친인 예쁜이의 운명은 물론 그 부모가 되는 김창문의 삶과 죽음까지를 비교적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 이런 사정은 『인간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여주인공 선비의 삶을 이야기하기에 앞서 그녀의 부친과 모친의 삶을 축약적으로 완료시키고, 첫째의 삶 또한 그런 연장선상에서 전경화시킨다. 이 과정에서 작가는 여주인공들을 겁탈은 물론 죽음과 같은 극한상황으로 내모는 것은 물론 그 가해자로서 이춘식이라든가 덕호와 같은 지주를 상징하고 있다.

이런 설정이 인물들의 계급적 구도를 명확히 함은 물론, 선비와 첫째가 도달하는 계급적 인식의 절실성과 역사적 당위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임은 분명하다. 그런데 이 과정 때문에 『어머니와 딸』과 『인간문제』는 작품의 전반과 후반, 그러니까 여성인물의 배경이 되는 성장사와 봉준과 친구들의 이야기라든가 첫째와 신철의 연관과 같은 현재 이야기가 긴밀하게 조응되지 못하고 기계적으로 결합된 듯한 느낌을 강하게 환기한다. 『어머니와 딸』의 경우 서술자는 옥과 산호주를 소개하는 자리에서, “지루하나마 옥의 친정어머니 이야기로부터 시작하자”라든가, “그

부인의 과거를 잠깐 이야기하고 지나가자”라는 말로서 인물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드러내놓고 이야기하는 이런 서술의 전환은 이야기-현실에 대한 독자의 집중을 저해하는 동시에 서술자가 서술의 논리에만 충실하려 한다는 인상을 강하게 전해준다. 또한 『인간문제』의 경우에도 이야기 무대가 서울로 변함에 따라서 총독부의 미곡정책, 미두(米豆), 미쓰꼬시 백화점의 풍요로움, 만주국과 같은 다양한 시대적 정보들이 제시되고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정보들이 작품의 주된 사건과 긴밀하게 맞물려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런데 더 문제적인 것은 이러한 강경애의 작법이 그보다 앞서 발표된 남성작가들의 방법론과 일정 부분 유사하다는 점이다. 『어머니와 딸』의 경우 인물의 현재를 이야기하기 위해 가계사를 들춰내는 방법론은, 역사적인 배경이라는 관점에서만 인물을 창조했던 김동인 특유의 소설적 방법론과 닮아 있는데, 『감자』와 『배따라기』 등 초기 소설에서 김동인이 마련한 통시적 인물화의 기법이 이에 대응하는 증거가 하나의 증거가 될 만하다. 또한 유학생인 봉준과 그 친구들의 교류담은, 일본에 유학했던 남성들이 부모가 맺어준 아내와 신여성 사이에서 보이는 심리적 동요의 장면을 담고 있는 채만식의 『과도기』(1923)의 장면과 매우 흡사하다. 보다 상세한 접근과 정황증거가 포착되어야 할 문제이긴 하지만 『어머니와 딸』 및 『인간문제』에서 그려지고 있는 여성인물의 각성의 작위성을 함께 고려해볼 때, 이런 정황은 강경애가 여성적 전망에 의해서 여성들의 삶의 경험을 담아내는 독자적인 이야기 문법을 확보했다기보다는 기존에 존재했던 남성적 경험을 담아내는 이야기문법에 기대고 있다는 점을 암시해준다.

따라서 강경애가 참조한 선행하는 그 남성적 이야기 문법이 그녀의 독서체험으로부터 비롯되었음을 상정하기란 그다지 어렵지 않으며, 이때 강경애의 독서체험의 원천이 되어주었던 작품들은 시기적으로 볼 때

거의 대부분 춘원과 김동인, 그리고 염상섭과 장혁주 등과 같은 남성작가의 작품이었을 가능성이 크다.<sup>9)</sup> 이렇게 생각한다면 강경애 소설이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남성중심적인 전망을 강하게 함축하고 있는 것도 의외는 아니라고 판단된다. 위에서 살펴본 바 『인간문제』가 첫째라는 남성적 인물의 각성의 플롯으로 귀결된 점도 하나의 방증이 된다. ‘각성의 플롯’을 배타적으로 남성적인 플롯이라고 하기는 어려울지도 모른다. 그러나 발단에서 절정, 그리고 대단원에 이르는 플롯 자체가 이른바 남성적 플롯(oedipal plot)으로 의심받고 있는 페미니스트 시학연구의 현주소를 감안한다면, 『인간문제』의 플롯이 설사 애초에 이중영웅의 플롯을 지향했다고 하더라도 남성적 영웅주의를 되풀이했거나 대파국으로 귀결되는 남성적 플롯의 기계적 차용일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sup>10)</sup> 강경애가 놓였던 이런 문제적인 독서체험의 상황은 아마도 1930년대에 활동했던 상당수 여성작가들의 문학적 환경이기도 했을 텐데, 최정희나 이선희와 같이 강경애와 대척적인 위치에 놓이는 여성작가의 작품 또한 식민지 시대 여성작가들의 이러한 문학적 수련의 특수성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을 것이다. 향후 여성문학 연구가 유념해야 하고 또 반드시 검증해야만 할 대목이 바로 이 점이다. 여성적 경험과 여성적 인식에 부합하는 이야기 형식과 문법의 구축이 어떤 경로를 통해 이루어졌는가 하는 문제가 바로 그것이다.

9) 강경애의 독서체험의 수준과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는 그녀의 산문이 간접적으로 증거하고 있다. 황보의 『명일의 길』을 읽은 독후감이라든가 양주동에 대한 논전의 글, 그리고 장혁주의 작품에 대한 그녀의 독서체험은 그녀의 산문에서 분명하게 확인된다.

10) 다분히 논쟁적인 이 논의에 대해서는 rachle blau dupleseie의 『지진성 오르가즘』 "seismic orgasm-Sexual Intercourse and Narrative Meaning in Mina Roy" (Kathy Mezei(ed), *ambiguous discourse*, Chapel Hill, 1996), pp.187~214를 참조하라.

□

- 김민정, 「일제시대 여성문학에 나타난 구여성의 정체성에 관한 연구」, 『여성문학연구』 제14호, p.216.
- 김양선, 『1930년대 소설과 근대성의 지형학』(소명, 2003), pp.260~261.
- 안숙원, 「유사남성적 언술과 ‘젠더’의식의 착종」, 안숙원 외, 『한국여성문학비평론』(개문사, 1995), pp.147~163.
- 이상경, 「강경애의 <인간문제>」, 이상경 편, 『인간문제』(창비사, 1992), pp.369~372.
- 이수현, 「1930년대 경향소설의 이중서사 연구-이기영의 『고향』과 강경애의 『인간문제』를 중심으로」(서강대 대학원, 2001), p.14.
- Mary Crawford/Roger Chaffin, "The Reader's Construction of Meaning", Elizabeth A. Flynn & Patrocínio Schweickat ed, *Gender and Reading*, Johns Hopkins U. p., 1986, pp.3~30.
- Peter Schwenger, *Phallic Critiques*, RKP, 1984, pp.1~15.
- rachle blau dupleseie, "seismic orgasm-Sexual Intercourse and Narrative Meaning in Mina Roy", Kathy Mezei(ed), *ambiguous discourse*, Chapel Hill, 1996, pp.187~214.

Abstract

## Rereading of the Novels of Kang Kyoung-Ae

-Reflecions on feminist interpretations of Novel

Kim, Kyeong-Su

Kang Kyung-Ae is one of the feminist writers who worked in 1920s. Because of her early issue-rasising of problems of women, she is continually estimated one of the feminist writers of the Japanese occupation era.

But many critics of Kang Kyung-Ae are mostly women and they uncritically took for granted that woman writers reflected the same gender-consciousness as writers. But the gender identity of writer is not same as the gender writers.

Kang Kyung-Ae's representative novels as *The Human Problem* and *the Mother and daughter* is overstimated as a radical works for the women's liberation. But clse reading or a phallocentral reading of these works reveals that her novels express a patriarchal perspective for the haman problem and the conditions og the people in the era of the Japanese occupation.

So for the right estimation of the women writers, we must scrutinize the gender of fictional text and writer herself(Sogang University).

**Key words** : gender-consciousness, feminist reading, phallic criticism, patriarchy

■ 본 논문은 9월 30일 투고되어 11월 10일에 심사가 완료되었으며 11월 20일 게재가 확정되었음.